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9호 [루체 제25492호] 주제 105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격사적서한을 보내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격사적서한을 보내신 소식을 8일과 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밝히셨다. 그이께서는 농업생산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집행하여야 하며 조선을 압록구와 남해, 고기와 파일이 넘쳐나는 나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이 조국의 자주적공업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 농업조직들과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 현대성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시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도이쉴란트연단 인민노동조합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공군 비행사위생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6》을 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을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비행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비행사위생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일단 공격명령이 내려

면 활력의 분기들을 가지없이 초도화해하려고 남진하는 인민군부대에 전격의 태공포를 열어준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경기대회에서 높은 비행술을 보여준 비행사위생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칭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중국의 《후동강신문》, 홍콩 《대공중》과 북방위성TV방송, 환구망, 일본의 《포도신문》, 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데》,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백두산체코조선친선협회와 인민노동조합, 도이쉴란트연단 인민노동조합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제스코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여단함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1045군부대관 하 산악보병대대의 스키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슬라브보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전원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모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모임이 한자어, 예콰도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회고모임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한자어아전국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기치로, 이룩하신 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주는 만년토대로 된다. 조선인민이 다그치고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곧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대전에 예콰도르 파관다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사추위위업실현을 위한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원수님에 의하여 한치의 드림도 없이 확고히 계승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을 헌신하게 령도하시어 단 몇해사이애 세인을 놀라우는 위대한 변혁을 안아오시었다.

그이께서 제시한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적 예콰도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모임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도이쉴란

드, 제스코, 베네수엘라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회고모임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 오스트리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본다고 하면서 그이의 서거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실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받들봉부화하시고 혁명위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국제사회의 김정일동지를 절절한 사상이론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었다.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국제사회의 김정일동지를 절절한 사상이론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었다.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국제사회의 김정일동지를 절절한 사상이론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었다.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국제사회의 김정일동지를 절절한 사상이론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었다.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국제사회의 김정일동지를 절절한 사상이론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었다.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국제사회의 김정일동지를 절절한 사상이론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시었다.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국제사회의 김정일동지를 절절한 사상이론가, 위인중의 위인으로 높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세속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총괄하여 만들어내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중앙당 평양시대의 당, 행정, 군로단체,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당간부양성기관, 혁명사적부서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쌓아올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통솔력,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내세운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중중한 토론이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조선로동당을 주체이 혁명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령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불멸의 당, 자주위업의 승리를 선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빛내이신 최후의 정기가, 절충한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혁명정당으로 건설하시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에서 처음으로 수령의 당건설을 기본력으로 하는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이론을 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완전히 충실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원칙체로 비강화발전시키시었다.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는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었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당건설사에 쌓아올린 가장 고귀한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전체 인민과 군대, 청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

으로 건설하시었다. 어머니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인민을 위하여 필사투쟁하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리 혁명무력건설사에서 처음으로 수령의 군대, 당군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수백만의 청년대군이 당의 전투적후배, 인솔부대, 발동대로 준비되어 영웅무궁한 강대성의 탐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시고 인민중심, 군대중심, 청년중심으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주체의 당건설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님이다.

김일성정치대학 학장 차경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백두산대국의 역년기풍을 마련하신 최후의 선군정령이시다》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불멸의 군력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멸불후의 선군혁명업적을 이룩하시어 인민군대를 무적불패의 혁명군으로,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켜주시었다.

네 나라, 네 조국을 사회주의성세로 누르며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이 전진의 불기름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하여주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군민단결을 실현하시어 백두산대국의 사회정치적지위를 한시같이 다지신 절충한 정치가이시이다.

군대와 인민이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로 굳게 결합되고 군민단결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져진것은 승고한 사랑과 불멸의 헌신으로 천만군민을 한몸에 안아 선군혁명중지로 키워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의 고귀한 결실이다.

토론자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역년기풍을 마련하시고 천만군민의 혼연일체를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불세출의 선군태양으로 영생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1관장 박정식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힘있게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에서 핵무기의 혁명적용, 지역자강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한 총결사전에 천만군민이 한사합같이 떨쳐나설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고 이 땅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다음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용대한 목표를 절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선원들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관한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한목숨하여 관철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수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세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건설에서 비약의

관철해나가도록 헌명하게 이끄신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장엄한 역사적대업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로수한 령도에 이끌려 빛나는 예지, 무비의 단결과 드넓 배양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펼쳐가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만군민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끌어안고 입심단결의 대의원을 더욱 아릅답게 가꾸시었으며 우리의 지위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혁명업적의 진과정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것으로 일관하시신 김정은 원수님이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맹렬달파 휴식일, 생신날도 따르 없이 불철주야로 이어진 어머니장군님의 헌신지도는 영웅적인 대의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헌신과 모교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조국의 통일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태양의 역사를 끊임없이 빛내이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이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지난 5년간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위대성이 넘쳤음이 파시던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가장 고결한 총정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수령명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진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여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원칙법과 금수산기념궁전을 제정하도록 하시었다는 태양의 역사를 끊임없이 빛내어주시는 만년기풍을 마련하신 역사적정적으로 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유훈을 드림없이

명령했으며 주체조선의 국력을 과학정체실력으로 위대한 만리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예적시대》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중중한 중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디에 자강혁명위업의 불기름을 지펴주시고 인민군대와 청년들을 위한 창조와 위업에 내세우시어 만리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예적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믿음직한 오직 자기 힘이며 제힘을 믿고 일떠서면 못낼일이 없지는 단결과 배양,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자력자강의 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헌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선군혁명의 기치이며 주체조선 인민군대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대군을 만리마시대의 선군사, 개척자들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모범을 온 나라가 적극 따르려하도록 하시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강히 높여주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세와 봉쇄속에서도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력 힘과 지혜로 지하관동자와 비항기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전승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건설의 대원기가



【조선중앙통신】

태 양 조 선 영 원 무 궁 만 만 세

2 면 에 서 계 속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오직 심경의
가리키때문이었다. 서서마다 신방이 벗겨
지는것도 모르고 원수님 가까이 적역복
차림으로 다우어 달려가던 방적공처럼,
원수님과 함께 있는것이 너무도 행복하여
적정의 눈물을 흘리고있던 평양공산공장 로동
자들, 끝없는 헌신에서 발을 뚫을 구르던
수산사업소의 녀인들, 떠나서는 그이를 떠나
서며 바다도 땅이런듯 그 차려낸 물결속에 서
슴없이 뛰어들던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
스스로 달려가 안기는 품, 어른들도 아이
들도 병사들도 청년들도 여성들도 로병들
도, 그렇게 온 나라가 달려가던 그 품은
장병 영웅히 안겨갈 삶의 보금자리였다.
사랑의 무한한 세계, 가없이 넓은 희망의
하늘이었다.

마음속에 그늘진 사람들에 더 기울어
주시는 사랑안고 우리 원수님 찾으신 길
질러나가, 단리인가, 이 땅에서 고이러는 말,
물불 사할없는 로인들이라는 말을 영영
떠나던 북방의 때두산영웅정년남조선
장군을 배넌적이나 찾아가신 그날들은 언제
였고 초창정만 퍼뜨리고 되시던만 자신께서
직접 가시어 위성과과학자를 평양으로 모두
초창정하신 그 겨울날은 또 언제였던가. 풍
이날라하는 어서애 오르시어 고기비늘이
문은 어로풍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수고한 해이퍼우신분, 불과 불이 맞선 위협
천만한 최대열점지역의 신초소를 찾아
27마리의 작은 목선으로 사치관을 뚫고
가신 그런 정이기에 더 목이 매어 원수님
품에 얼굴을 묻고 격정을 뜨르렀다.

우리 다 알았었다. 온 나라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불바람이 실지할 대형핵시계
자신의 차에 싣고 달려가시니, 과학자들
에게 안겨줄 살점과 후양소가 얼마나
는일에 어려웠으면 새벽에 전화를 거시고
그달음으로 먼길을 떠나시었으랴. 지난
5년새를 공식 발표된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만 하여도 수백자, 인민을
위하여 그러도 해야 할 일감들이 많아서
말씀처럼 사신 일년사시일이 현지지도도
필수였고 인민을 문명에도, 행복에도
발돋움시킨 거대한 창조적 세월이었다.

유대르시다. 저 하늘의 태양이 뜨겁다
한들 그이 정만함 뜨거우려.

어머니이시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
의 마음을 하나로 합친것보다 더 거대한 정
의 불길이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어깨춤이 걸로 남
니다!

나는 지금 인민들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
겁습니다. 이런 면에 현명을 하는것입니다.
나도 장군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장그러 불태워나가려
고 합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있어서 인민은 무엇
이기에 이렇게 불같은 마음을 버치시는것
이었던가.

그렇게 있어서 인민은 순간도 떨어지는
는 살수 없는 심장, 한복을 장그러 다 버쳐
서라도 빛내어야 할 그의 하늘이고 삶의
전부였다.

우리 수병님 키우시고 장군님 그러도

아끼시던 인민을 수병님들을 만들어모시듯이
말드시는분, 그 인민을 위해서라면 불우에도
꽃을 피우고 그 사랑 안고 가시는 길에 실사
환상의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람
이 없다고 여기시는 열사목부의 의지!

아, 그래서 우리 원수님 사랑하시는 노래
도 그대가 크나큰 상징이라면 이 붉은
그 품에 뛰는 지방을 마지막 희망을 다할
때까지 눈리는 고통을 더해주시라는
그렇듯 뜨거운 삶의 메아리가 아니었던가.
나는 그늘이 깊대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성된 구상합용사들을 다시 일으켜세워
붉은기에 쫓겨안아 영생의 언덕에 세워
주시고 분노 자신께서 모두가 되어주신
그 열외의 정, 그토록 사랑하시던 전우의 평
생을 찾으시어 비분을 굶지 못하시며 영생의
승걸 부여주시듯 뜨거운 손길을 얹으시던
그 위대한 화폭들은 5년의 갈래에 성스
러운 질리를 새기었다.

우리 원수님 따르는 길엔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며 그 품에서는 빛나는 최후는 있어
도 죽을지언 없었다는 질리물.

거대한 총정의 불길이 소용돌이치고
인심이 마칠내 촉발하였다. 그것은 온식
간에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핵의 융합과정과도 같은 무서운 힘의
분출이었다.

총파병들을 전기료에 적당했다고 불고일
어니던 1950년대의 그 정신이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신념의 함성으로 머
쳐올라 12월의 눈보라를 붉게 물들이었고
밀려드는 전쟁의 불구름을 맞받아 단 하루
동안에 100여만이 입대와 복대를 받던
해나선 조국수호의 불사신들로 추구했다.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돈다!
앞에서 바라다보면 지난 십년만에 한것보
다 더 빈대진 건설과제를 불과 나날 남짓한
기간에 해쳐끼며 백두산영웅정년남조선
언제를 쌓아올린 백두정촌들, 흥남에서
거대한 비밀집을 짓고 언박을 열면서
도 기어이 만리마속도를 창조했고 그리울
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증명했다. 황금애의
창조자들이 이 결사의 정신으로 만선의 배
고룡소리 높이 울렸고 우리의 국방과학자
들이 이 신념의 불순로 지족을 올리는 조선
의 피성을 피쳐올렸다. 북반부에 울려가진
승리의 피성도 원수님 따라 하늘을 갈라지
가고가려는 인민의 일편단심의 우렁찬
선언이며 또 하나의 전승의 촉촉성이었다.

이 땅에 5년의 기념비는 없다.
하나 세제는 특후히 목격하고있다. 우리
원수님이 나라의 아들딸들을 당중앙의
세워주시고 우리 당의 붉은 기쁨에 모두
참여하신 성스러운 화폭, 불매의 조선로동
자의 두리에 천만민이 거창한 신악을 이루고
천경단위의 강철의 성채를 쌓은 이 불멸의
군상이야말로 5년의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대기비비로 만방에 천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병님들의 영원한 사랑이 여기에
서 불없이 생기고 변함없이 이어지는
인민들의 발걸음소리가 여기서 울리며
막혔던 생각을 뚫어주시고 하고 지킬
세라 뜨겁게 고무격려해주기도 하시는
철근한 음성과 높이 들어 승리의 언력을
가리키시는 위대한 손길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를 이어 영원히 이 과학에 살고
이 법칙을 믿어야 하며 이 행을 가야
한다. 바로 거기에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당과 국가가 있고 주체의 사회주
의제도와 온갖 제법들이 있으며 우리 생활
의 미덕과 향기, 참다운 존엄과 긍지, 역사
의 반들의 종국적대비가 있다.

2000년대가 지나고 3000년대,
4000년대가 지나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이 땅에 인민이 있는 한 태초순은 안고 살아
야 할 천만민의 교파시이고 순간도 내리우지
않아 할 혁명의 불은기, 명물처럼 넘겨주
고 넘겨야 할 혁명의 근본력이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

우리는 세월의 끝까지 이 구호를 붙은기
처럼 높이 불고 싸우나가야 한다.

천만민이여, 가슴에도 지부하라.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
의 전사, 제자들, 우리 당의 붉은 피안이 심
장에 고동치는 태양의 아들딸들이다.

우리 당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우리 로
동계급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생성된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정년원, 당도
국가도 군대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게 불는 사상순결제, 조직적일체제
변함없이 강화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
의 명맥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

하나 작은 수병이 떠오른다.
날 품속에 지니고 다니시며 아득한 저
쪽이던에서도 한강한강 번쳐보시던 우리
원수님의 수병!

위대한 수병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수병님들의 유혼을
포착포착 정리 기록한 그 수병을 또 하나
의 심장처럼 품고 다니신다. 그렇게 한
수병님들의 교시를 연구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사업을 설계하시며 기적의 세월을
펼쳐가신다.

우리 모두 위대한 수병님들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헌신하는것은 드림도 없이
유혼을 붙여우려, 언제나 마음속으로 위대한
위대한 수병님들의 선군사상에서 출발한것
이고 우리 원수님 로동당의 당풍으로
내세우신 열사목부의 기치도 위대한
수병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인민위
의의 뜻에 그 뿌리를 둔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년강국도 위대한 수병님들의 청년
금지사상과 평도의 빛나는 구원이고 온
나라에 불길치는 굴함없는 공적정신, 백두
의 칼바람정신도 우리 수병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고계신 혁명정신이었다.

정령 어느것 하나 우리 수병님들의 뜻에
서 출발하지 않은것이 없고 그분들의 유혼
과 이어지지 않은것이 없다.

합악에도 사상을 새우면 마위를 열수
있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명언과 더불어
시대를 전진시킨 사상전의 포성에서는
나는 언제나 사상을 준장합나다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적인 음성이
울려온다. 이땅과 저이기에 다르게 천지개혁
을 일으킨 《마시평속도》, 조선속도라는
말만 외워도 일찌기 속도전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빛나는 실천적본보기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숨쉬고 있
는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땅속에는
우리 지하원동차, 도처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의것을 포착처럼 쏟아낸 자강제일주의의
제수지는 항일의 나날부터 시종일관 우리
수병님들께서 언제나 이어주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시련을 뚫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야말로 우리 국가의
존재와 발전의 법칙, 우리 인민의 생명과
생활의 법칙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과학
이라는것을 이 5년이 증명하였다.

오늘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전세계가 지켜본 함북도 북부비해북구두평
의 60여명의 주제가이기도 하였던 노래-
《운명의 손길》, 《천리마도 만리마도》 ...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실천
이라는 질리를 심장에 새기고 온 나라가
이렇게 원수님을 목매어 부르며 세상을
늘어놓은 영웅화들을 창조하였고 전화위부
의 기적적승리와 무전무형의 대승리, 건설
에도 없는 만리마시대를 펼쳐놓았다.

우리의 신심도 단결이 있고 희망과 열정
도 단결이 있으며 그것은 또 죽음앞에서도
굴함없는 신념이고 배양이다. 창조와 건설
에서는 기적의 마지가 되고 원수님에게
무서운 별수가 되는 우리의 단결, 이것만
있으면 지구가 깨어져도 두려울것이 없고
넌지 못할 불가능이 하나도 없다.

전쟁 행복이여, 영광이여, 이 성스
러운 단결의 열매에 심장을 있고 산다
는것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는 혼연일체의
중심에 모시었다.

오직 마음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장그러 버치시는분, 자신께서는 어머니
조국을 위해 마지막 기 한방울까지 바칠 결
심이라고 하시며 그 어떤 난관도 주저없이
맞받아나가는분, 인민위한 온갖 고생을
환신신 웃음으로 흘려버리시며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에선 온애로운 햇빛이 되시고 눈
비바람 다 막아주는 어머니를이시었지만
인민의 원수들에게 수호의 자비도 모르는
위대한 수호자이시었다.

부정의 길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던
제국주의목표를 무사비하게 무사비하고
인민의 미러우에 평화의 맑은 하늘만큼
펼쳐진 길의 영웅, 민족의 어머니를
파워 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심장으로 태워지지 않으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해방된 강산에서 위대한 훈인, 절세의
애국자를 노래하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찬양하였을지, 저 고산의 언덕에서 빛나는
신군래양을 위하여 《김정일장군 만세!》를
찬양하였을지 우리 이 부름 높이 이뤄지며
미레로 가리려, 승리로 가리려.

우리 단결의 정신은 김정은승배정신,
김정은장군승배정신이다.

천만민이여, 조국의 운명이고 미래
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수병을위천, 입심단결을위천
후사가 되자.

오늘이시다. 지나가나 우리 원수님밖에
모르는 대후의 불명어려, 실사 몸은 절해고도
에 있다 해도 그이 함께 심장을 있고
살며 그이의 안념과 기쁨을 위함이라면
지구도 들어올리고 하늘도 밟아도 넣고 일어
서는 총성의 한모습으로 삼여 투쟁하자.

원수님이 제대 무사비하는것은 바로
우리의 입심단결이요 제일 괴를 품고
노리는것도 이 단결에 금을 내는것이다.
제야무리 역사의 반들이 태양과 인민을
감싸놓으려고 발악하여도 정의와 질리,
정과 신념으로 뚫힌 우리 원수님과 인민의
혼연일체, 이 백두산성세를 깨뜨린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높은 산 병마무가 가까와올수록 바람은
더욱 세차수록 조선혁명의 최후승리가 눈앞
에 다가올수록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으려는
원수들의 발악은 극도에 달할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졌다.
지구는 반드시 조선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고 시간도 정의도 오직 조선인민의 편에
있다는것이 인류가 내린 결론이다.

《조선은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있다.》 《조선은 지금 70세상을
배어리는 자기 역사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청춘기를 구하고있다.》 ...

제도하는 대국들의 핵무력에서 울려
나오는 이 목소리를, 광범한 인내테트망들
에 퍼올려 세계의 민심을 뒤흔드는 이 격찬
들은 인류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당한 대답이다.
대일에 대한 우리의 환희는 결코 끊어
아니다.

우리의 승리는 절대불변의 과학이다!
수수억년 밤이 왔어도 어김없이 밝아온 새
날과도 같이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아침만이 밝아올것이며 오직 앞으로만
내달리는 초침과도 같이 우리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우리는 모든것에 다 준비되어있다.
피눈물의 바다를 두번이나 헤치고 인류
사상 최대의 세계와 봉쇄를 수습기간이나
격파했다. 조성없는 전쟁의 수습년, 끊임
없이 걸치는 자연재해... 우리가 겪어왔
던 모든 슬픔과 시련은 다른 나라같은
일찍이 무너졌을 최악의 역경이었던
조선은 언제 한번 자기가 정한 길을 애들
거나 피한적이 없었고 백전백승하였다.

가장 걸출한 절세의 위인을 명도자르
모시고있고 인민대중에게서, 열사목부
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가
어머니우사처럼 천만신민들을 품어주는
우리 조국, 불매의 백두산혁명장군과 오직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펼쳐나가는 자강력
의 투사들, 과학기술의 소유자들이 장려한
세대로 그늘이 없었고 백전백승하였다.

천만신민을 웃으며 헤쳐온 영웅조선은
당도 장성의 당이고 인민도 그 한평생이
백두산과도 같은 세상제일의 소유자들이다.
파워 이 조선만큼 그렇게 최일파 막대한
넘쳐 밝고밝은 태양을 내다보는 나라, 이처럼
자신과 열정에 넘쳐 만만시련을 차차
면서 전군의 보복을 내치는 나라의 세상에
없다.

우리와 함께 5년을 걸어오 또 패업을
함께 앞두고있는 세계의 모습을 보라.
오늘날 세계에는 남장도들의 진형에
주권국가들이 무망히 침해당하는 비극적
사태들이 편이여 벌어지고있다. 여기저기
에서 전쟁과 류혈사태, 피난과 불평등,
레로 보복의 악순환들이 아물수 없는
총쳐와도 같이 이 행성을 괴롭히는 가슴
아픈 광풍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다.

오늘의 이 세계와 천만민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은 과학이요 우리의 승리도 과학
이라고 선언하시었다.

승리는 믿는자의것이다.
이 행성의 시간은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호르고있고 빛날아오는 시련도 조선의 승
리를 더욱 격렬하게 증명할뿐이요 원수
들의 막어 가증일수록 더욱 용감하게 승
리를 맞보리라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죽어도 필승의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지구가 깨
져도 조선은 억척불변이며 혁명의 길에
쳐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천만민의 승리가 약속이여 땅에는 또
미나 누는신 세월이 마중오고있는것인가.
그러나 보아도 신심단결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편이 나는 세월이 끝없이 이어지고
세계가 무너져하는 최고의 문명은 어디서
여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천만민의 승리가 약속이여 땅에는 또
미나 누는신 세월이 마중오고있는것인가.
그러나 보아도 신심단결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편이 나는 세월이 끝없이 이어지고
세계가 무너져하는 최고의 문명은 어디서
여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천만민의 승리가 약속이여 땅에는 또
미나 누는신 세월이 마중오고있는것인가.
그러나 보아도 신심단결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편이 나는 세월이 끝없이 이어지고
세계가 무너져하는 최고의 문명은 어디서
여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제3편 이 조선 태양처럼 빛나라

불멸의 태양기가 휘날린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생는김천만리
곳곳이 헤쳐온 승리자들, 강대하고 존엄
높은 이 조선의 아들딸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삼가 경의를 드리고있다.

역사는 미래를 비치는 거울이라고 하
고. 성스러운 5년의 언덕에 올라선 지금
우리는 반드시 오고야할 승리의 봄, 희망의
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하고 번영하는
위대한 장군님 조국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가슴속까지 안아보고있다.

이제 우리 또다시 폭풍쳐가리라,
천만민이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그이께서 한평생을 바쳐 사랑하신 인
민에게 새 전군의 보부를 우리 힘차게 내
지다. 지난 5년과 같이 무궁무진 장군님의
영성을 지켜드리고 핵에 불멸할 이 5년
과 같이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더 용
감히, 더 절풍같이 제일로 달려나가자.

5년은 가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의 억만년
미래를 비치는 투쟁의 재분, 주체위정
완성의 길에 끝까지 이어가야 할 또 하나
의 귀중한 정통이다.

력사는 기억했다. 세계는 보았다. 조선이
과연 무엇을 목숨처럼 품어주고 그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가장
거창한 위업을 이룩하며 세계일에 그리도
존엄높이, 긍지높이 우뚝 서게 되었는가를.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 높은 연단에서 이 조선의
불변의 정로를 밝히시며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들고
나가며 수병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정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
하겠습시다.

바로 이것이다. 5년의 성스러운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귀중한 질리를
새기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만 들어주
는것은 언제나 승리하고 인민은 언제나 행
복하며 제국주의는 반드시 정의일에 굴복
하고야만한다는것을.

어디 가나 들어보고 누구에게나 물어
보라. 다함없는 영생축원의 꽃바구니, 총정
과 보당의 선물들을 한가득 마련하고 이
시각 금수산대양궁전으로 마음달리는 병사
들과 근로자들,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에게 다 물어보라. 그들은 대답할것이다.

위대한 수병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수병님들의 유혼을
포착포착 정리 기록한 그 수병을 또 하나
의 심장처럼 품고 다니신다. 그렇게 한
수병님들의 교시를 연구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사업을 설계하시며 기적의 세월을
펼쳐가신다.

우리 모두 위대한 수병님들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헌신하는것은 드림도 없이
유혼을 붙여우려, 언제나 마음속으로 위대한
위대한 수병님들의 선군사상에서 출발한것
이고 우리 원수님 로동당의 당풍으로
내세우신 열사목부의 기치도 위대한
수병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인민위
의의 뜻에 그 뿌리를 둔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년강국도 위대한 수병님들의 청년
금지사상과 평도의 빛나는 구원이고 온
나라에 불길치는 굴함없는 공적정신, 백두
의 칼바람정신도 우리 수병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고계신 혁명정신이었다.

정령 어느것 하나 우리 수병님들의 뜻에
서 출발하지 않은것이 없고 그분들의 유혼
과 이어지지 않은것이 없다.

합악에도 사상을 새우면 마위를 열수
있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명언과 더불어
시대를 전진시킨 사상전의 포성에서는
나는 언제나 사상을 준장합나다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적인 음성이
울려온다. 이땅과 저이기에 다르게 천지개혁
을 일으킨 《마시평속도》, 조선속도라는
말만 외워도 일찌기 속도전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빛나는 실천적본보기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숨쉬고 있
는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땅속에는
우리 지하원동차, 도처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의것을 포착처럼 쏟아낸 자강제일주의의
제수지는 항일의 나날부터 시종일관 우리
수병님들께서 언제나 이어주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시련을 뚫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야말로 우리 국가의
존재와 발전의 법칙, 우리 인민의 생명과
생활의 법칙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과학
이라는것을 이 5년이 증명하였다.

오늘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위대한 수병님들의 영원한 사랑이 여기에
서 불없이 생기고 변함없이 이어지는
인민들의 발걸음소리가 여기서 울리며
막혔던 생각을 뚫어주시고 하고 지킬
세라 뜨겁게 고무격려해주기도 하시는
철근한 음성과 높이 들어 승리의 언력을
가리키시는 위대한 손길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대를 이어 영원히 이 과학에 살고
이 법칙을 믿어야 하며 이 행을 가야
한다. 바로 거기에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당과 국가가 있고 주체의 사회주
의제도와 온갖 제법들이 있으며 우리 생활
의 미덕과 향기, 참다운 존엄과 긍지, 역사
의 반들의 종국적대비가 있다.

2000년대가 지나고 3000년대,
4000년대가 지나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이 땅에 인민이 있는 한 태초순은 안고 살아
야 할 천만민의 교파시이고 순간도 내리우지
않아 할 혁명의 불은기, 명물처럼 넘겨주
고 넘겨야 할 혁명의 근본력이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

우리는 세월의 끝까지 이 구호를 붙은기
처럼 높이 불고 싸우나가야 한다.

천만민이여, 가슴에도 지부하라.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
의 전사, 제자들, 우리 당의 붉은 피안이 심
장에 고동치는 태양의 아들딸들이다.

우리 당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우리 로
동계급도 영웅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생성된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정년원, 당도
국가도 군대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게 불는 사상순결제, 조직적일체제
변함없이 강화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
의 명맥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

하나 작은 수병이 떠오른다.
날 품속에 지니고 다니시며 아득한 저
쪽이던에서도 한강한강 번쳐보시던 우리
원수님의 수병!

위대한 수병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수병님들의 유혼을
포착포착 정리 기록한 그 수병을 또 하나
의 심장처럼 품고 다니신다. 그렇게 한
수병님들의 교시를 연구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사업을 설계하시며 기적의 세월을
펼쳐가신다.

우리 모두 위대한 수병님들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헌신하는것은 드림도 없이
유혼을 붙여우려, 언제나 마음속으로 위대한
위대한 수병님들의 선군사상에서 출발한것
이고 우리 원수님 로동당의 당풍으로
내세우신 열사목부의 기치도 위대한
수병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인민위
의의 뜻에 그 뿌리를 둔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년강국도 위대한 수병님들의 청년
금지사상과 평도의 빛나는 구원이고 온
나라에 불길치는 굴함없는 공적정신, 백두
의 칼바람정신도 우리 수병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고계신 혁명정신이었다.

정령 어느것 하나 우리 수병님들의 뜻에
서 출발하지 않은것이 없고 그분들의 유혼
과 이어지지 않은것이 없다.

합악에도 사상을 새우면 마위를 열수
있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명언과 더불어
시대를 전진시킨 사상전의 포성에서는
나는 언제나 사상을 준장합나다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열정적인 음성이
울려온다. 이땅과 저이기에 다르게 천지개혁
을 일으킨 《마시평속도》, 조선속도라는
말만 외워도 일찌기 속도전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빛나는 실천적본보기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숨쉬고 있
는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땅속에는
우리 지하원동차, 도처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의것을 포착처럼 쏟아낸 자강제일주의의
제수지는 항일의 나날부터 시종일관 우리
수병님들께서 언제나 이어주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시련을 뚫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야말로 우리 국가의
존재와 발전의 법칙, 우리 인민의 생명과
생활의 법칙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과학
이라는것을 이 5년이 증명하였다.

오늘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전세계가 지켜본 함북도 북부비해북구두평
의 60여명의 주제가이기도 하였던 노래-
《운명의 손길》, 《천리마도 만리마도》 ...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실천
이라는 질리를 심장에 새기고 온 나라가
이렇게 원수님을 목매어 부르며 세상을
늘어놓은 영웅화들을 창조하였고 전화위부
의 기적적승리와 무전무형의 대승리, 건설
에도 없는 만리마시대를 펼쳐놓았다.

우리의 신심도 단결이 있고 희망과 열정
도 단결이 있으며 그것은 또 죽음앞에서도
굴함없는 신념이고 배양이다. 창조와 건설
에서는 기적의 마지가 되고 원수님에게
무서운 별수가 되는 우리의 단결, 이것만
있으면 지구가 깨어져도 두려울것이 없고
넌지 못할 불가능이 하나도 없다.

전쟁 행복이여, 영광이여, 이 성스
러운 단결의 열매에 심장을 있고 산다
는것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는 혼연일체의
중심에 모시었다.

오직 마음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장그러 버치시는분, 자신께서는 어머니
조국을 위해 마지막 기 한방울까지 바칠 결
심이라고 하시며 그 어떤 난관도 주저없이
맞받아나가는분, 인민위한 온갖 고생을
환신신 웃음으로 흘려버리시며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에선 온애로운 햇빛이 되시고 눈
비바람 다 막아주는 어머니를이시었지만
인민의 원수들에게 수호의 자비도 모르는
위대한 수호자이시었다.

부정의 길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던
제국주의목표를 무사비하게 무사비하고
인민의 미러우에 평화의 맑은 하늘만큼
펼쳐진 길의 영웅, 민족의 어머니를
파워 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심장으로 태워지지 않으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해방된 강산에서 위대한 훈인, 절세의
애국자를 노래하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찬양하였을지, 저 고산의 언덕에서 빛나는
신군래양을 위하여 《김정일장군 만세!》를
찬양하였을지 우리 이 부름 높이 이뤄지며
미레로 가리려, 승리로 가리려.

우리 단결의 정신은 김정은승배정신,
김정은장군승배정신이다.

천만민이여, 조국의 운명이고 미래
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수병을위천, 입심단결을위천
후사가 되자.

오늘이시다. 지나가나 우리 원수님밖에
모르는 대후의 불명어려, 실사 몸은 절해고도
에 있다 해도 그이 함께 심장을 있고
살며 그이의 안념과 기쁨을 위함이라면
지구도 들어올리고 하늘도 밟아도 넣고 일어
서는 총성의 한모습으로 삼여 투쟁하자.

원수님이 제대 무사비하는것은 바로
우리의 입심단결이요 제일 괴를 품고
노리는것도 이 단결에 금을 내는것이다.
제야무리 역사의 반들이 태양과 인민을
감싸놓으려고 발악하여도 정의와 질리,
정과 신념으로 뚫힌 우리 원수님과 인민의
혼연일체, 이 백두산성세를 깨뜨린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높은 산 병마무가 가까와올수록 바람은
더욱 세차수록 조선혁명의 최후승리가 눈앞
에 다가올수록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으려는
원수들의 발악은 극도에 달할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졌다.
지구는 반드시 조선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고 시간도 정의도 오직 조선인민의 편에
있다는것이 인류가 내린 결론이다.

《조선은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있다.》 《조선은 지금 70세상을
배어리는 자기 역사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청춘기를 구하고있다.》 ...

제도하는 대국들의 핵무력에서 울려
나오는 이 목소리를, 광범한 인내테트망들
에 퍼올려 세계의 민심을 뒤흔드는 이 격찬
들은 인류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당한 대답이다.
대일에 대한 우리의 환희는 결코 끊어
아니다.

우리의 승리는 절대불변의 과학이다!
수수억년 밤이 왔어도 어김없이 밝아온 새
날과도 같이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아침만이 밝아올것이며 오직 앞으로만
내달리는 초침과도 같이 우리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

우리는 모든것에 다 준비되어있다.
피눈물의 바다를 두번이나 헤치고 인류
사상 최대의 세계와 봉쇄를 수습기간이나
격파했다. 조성없는 전쟁의 수습년, 끊임
없이 걸치는 자연재해... 우리가 겪어왔
던 모든 슬픔과 시련은 다른 나라같은
일찍이 무너졌을 최악의 역경이었던
조선은 언제 한번 자기가 정한 길을 애들
거나 피한적이 없었고 백전백승하였다.

가장 걸출한 절세의 위인을 명도자르
모시고있고 인민대중에게서, 열사목부
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가
어머니우사처럼 천만신민들을 품어주는
우리 조국, 불매의 백두산혁명장군과 오직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펼쳐나가는 자강력
의 투사들, 과학기술의 소유자들이 장려한
세대로 그늘이 없었고 백전백승하였다.

천만신민을 웃으며 헤쳐온 영웅조선은
당도 장성의 당이고 인민도 그 한평생이
백두산과도 같은 세상제일의 소유자들이다.
파워 이 조선만큼 그렇게 최일파 막대한
넘쳐 밝고밝은 태양을 내다보는 나라, 이처럼
자신과 열정에 넘쳐 만만시련을 차차
면서 전군의 보복을 내치는 나라의 세상에
없다.

우리와 함께 5년을 걸어오 또 패업을
함께 앞두고있는 세계의 모습을 보라.
오늘날 세계에는 남장도들의 진형에
주권국가들이 무망히 침해당하는 비극적
사태들이 편이여 벌어지고있다. 여기저기
에서 전쟁과 류혈사태, 피난과 불평등,
레로 보복의 악순환들이 아물수 없는
총쳐와도 같이 이 행성을 괴롭히는 가슴
아픈 광풍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다.

오늘의 이 세계와 천만민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은 과학이요 우리의 승리도 과학
이라고 선언하시었다.

승리는 믿는자의것이다.
이 행성의 시간은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호르고있고 빛날아오는 시련도 조선의 승
리를 더욱 격렬하게 증명할뿐이요 원수
들의 막어 가증일수록 더욱 용감하게 승
리를 맞보리라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죽어도 필승의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지구가 깨
져도 조선은 억척불변이며 혁명의 길에
쳐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천만민의 승리가 약속이여 땅에는 또
미나 누는신 세월이 마중오고있는것인가.
그러나 보아도 신심단결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편이 나는 세월이 끝없이 이어지고
세계가 무너져하는 최고의 문명은 어디서
여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천만민의 승리가 약속이여 땅에는 또
미나 누는신 세월이 마중오고있는것인가.
그러나 보아도 신심단결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편이 나는 세월이 끝없이 이어지고
세계가 무너져하는 최고의 문명은 어디서
여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천만민의 승리가 약속이여 땅에는 또
미나 누는신 세월이 마중오고있는것인가.
그러나 보아도 신심단결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편이 나는 세월이 끝없이 이어지고
세계가 무너져하는 최고의 문명은 어디서
여우다 쓰러지면 태를 이어서라도 영원히
한길만을 가리려는 신념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자.



대중운동에서 기본은 정신력발동이다

순천 화력발전소 초급당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직접적담당자는 대중자신인것만큼 이 운동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조직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순천 화력발전소 초급당원회회가 이 문제를 솔직하게 제기하여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지도에서 초급당원회회가 힘을 넣은것은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누구나 경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주인공이 될수 있게 한것이다.

초급당원회회일군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 3월 열생산직에서 나가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경의목표수행정형을 알아보면 초급당원들은 몇가지 경의목표를 이룩한 수준에서 정지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경의목표수행정형을 알아보면 초급당원들은 몇가지 경의목표를 이룩한 수준에서 정지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정신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몇몇 일군들이 아닌 모든 당원들의 힘으로 해결될수 있다. 발전소의 모든 일군들과 동지, 기술자들이 한마음을 합쳐서 심리관리, 기술관리에 주인공이 될수 있다.

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이것은 그들이 경의목표수행에 적극 뛰쳐나서기 하였다.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단위를 벌고 일군들, 모범적인 노동자들에게 대한 평가사업도 의의가 깊었다.

열생산직 1교대 1호보이라 조직공과 당원기사가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했을 때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에 등록하고 등록금도 100원씩을 받으며 크게 소개하였으며 혁신사색하루대에도 내세우고 물질적정가를 특색있게 한것을 높이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대중의 경쟁의욕을 부추겨주고 선비관리, 기술관리에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주는 작용을 하였다.

이런 방법은 대중의 정신력을 높여 최전선으로 뛰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지난 7월 대보수중에 있는 2호터빈의 회전사육에서 균열부위가 발견되었을 때 라인직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선반을 대담하게 라인보수현장에 전개하고 새로운 기구를 창안 도입하여 회전사육을 기공함으로써 보수기간을 보름이나 단축하게 하였다. 선비관리, 기술관리에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된 결과 선비리용률이 높이고 이같은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선반의 선비와 노력을 가지고 70일정도에 최후생산단수준을 돌파하였는데 200일정도의 목표를 앞당겨 끝내었다.

초급당원회회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일군들의 선구자적역할을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큰 작용을 하였다.

초급당원회회는 기술혁명경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술자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우선 대담하게 일감을 맡겨주어 그들이 기술혁명경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맡겨주어 그들이 선구자적역할을 맡겨주었다.

주요혁명사기지를 무한 과정

을 놓고 말할수 있다. 처음 해보는 조건에서 신심을 주기 위한 정치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초급당원회회는 기술자들과 일군들, 노동자들에게 대한 평가사업을 조직한 다음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도 따라세워 그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하여 달마다 수십t의 주강물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미분생산율 1.5배로 높이고 권력생산율 1.5배로 높이고 이바지하게 하였다.

또한 기술자들의 사업적성과 생활조건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과학기술보급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의 사실을 놓고보자. 당시 일부 일군들은 발전소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급당원회회는 이 사업을 맡겨주어 그들이 선구자적역할을 맡겨주었다. 발전소의 선비리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열쇠의 하나를 보이기 위한 미분생산률 1.5배로 높이고 권력생산율 1.5배로 높이고 이바지하게 하였다.

일군들의 선구자적역할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큰 작용을 하였다.

초급당원회회는 기술혁명경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술자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우선 대담하게 일감을 맡겨주어 그들이 기술혁명경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맡겨주어 그들이 선구자적역할을 맡겨주었다.

주요혁명사기지를 무한 과정

합용건설자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총정 200일정도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합용건설자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뚝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증상률의 동등성을 높이 올려서 제품의 질제고와 선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목표로 내세워주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초 공장의 일군인 류영명동지는 구내를 돌아 보면서 자책되는바가 있었다. 보당위원회 지도부에 공장에서 새로운 타일용 생산기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미 생산하고있던 자기제품의 질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류영명동지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제를 일군들의 회의에서 제기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의문을 표시했다.

자급의 상태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는것도 곤란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기 전에 현실의 요구, 인민의 요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00일정도에 새로운 타일용 생산기기를 도입하는것이 우리의 당의 호소에 맞게 목표의 높이 세우고 그 실천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녀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격려사인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녀맹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녀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한은 녀맹동맹을 명실공히 수행하는 데 있다. 녀맹동맹은 명실공히 수행하는 데 있다. 녀맹동맹은 명실공히 수행하는 데 있다.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한은 녀맹동맹을 명실공히 수행하는 데 있다. 녀맹동맹은 명실공히 수행하는 데 있다. 녀맹동맹은 명실공히 수행하는 데 있다.

그들은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위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시한을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안기었기때문에 대담하게 대항하였다.

녀맹조직들과 일군들과 녀맹위원들이 당의 군사중시사업과 로선으로 철저히 투쟁하고 인민군대내 친혁명적정신 사색을 청산하고 혁명적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있다.

그들은 녀맹조직들과 일군들과 녀맹위원들이 당의 군사중시사업과 로선으로 철저히 투쟁하고 인민군대내 친혁명적정신 사색을 청산하고 혁명적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있다.

녀맹조직들과 일군들과 녀맹위원들이 당의 군사중시사업과 로선으로 철저히 투쟁하고 인민군대내 친혁명적정신 사색을 청산하고 혁명적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있다.

애국모란피복공장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애국모란피복공장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13일에 진행되었다.

김용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판계부,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애국모란피복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을 애국모란피복공장에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을 애국모란피복공장에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을 애국모란피복공장에 전달하였다.

제품의 질제고에 비견 애국의 마음

합용건설자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뚝이 크게 세우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증상률의 동등성을 높이 올려서 제품의 질제고와 선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목표로 내세워주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초 공장의 일군인 류영명동지는 구내를 돌아 보면서 자책되는바가 있었다. 보당위원회 지도부에 공장에서 새로운 타일용 생산기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미 생산하고있던 자기제품의 질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류영명동지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제를 일군들의 회의에서 제기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의문을 표시했다.

자급의 상태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는것도 곤란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우리는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기 전에 현실의 요구, 인민의 요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00일정도에 새로운 타일용 생산기기를 도입하는것이 우리의 당의 호소에 맞게 목표의 높이 세우고 그 실천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스위스정부가 제공하는 협조물자 도착

우리 나라에 스위스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제공하는 우유가루가 12일 남포항에 도착하였다.

우리 나라에 스위스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제공하는 우유가루가 12일 남포항에 도착하였다.

재오스트리아동포전국련합회 회장 도착

위대한 평등사 김일성동지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박용하 재오스트리아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평등사 김일성동지의 서거 5주에 즈음하여 박용하 재오스트리아동포전국련합회 회장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일행 도착

조난한 포월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일행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난한 포월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일행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위원장 일행이 13일 평양을 떠났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위원장 일행이 13일 평양을 떠났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위원장 일행이 13일 평양을 떠났다.

소문없이 일신되어가는 교정의 자람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에서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환경은 거름과 같다

환경은 거름과 같다. 교정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환경은 거름과 같다. 교정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환경은 거름과 같다. 교정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환경은 거름과 같다. 교정의 자람을 소개하고있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위원장 일행이 13일 평양을 떠났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위원장 일행이 13일 평양을 떠났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위원장 일행이 13일 평양을 떠났다.

독자의 편지

독자의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있다.

독자의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있다.

독자의 편지 내용을 소개하고있다.

이런 대학생들 널리 소개해주십시오

이런 대학생들 널리 소개해주십시오. 소개해주십시오.

이런 대학생들 널리 소개해주십시오. 소개해주십시오.

이런 대학생들 널리 소개해주십시오. 소개해주십시오.

